

農村私債市場의 經濟的 效率性에 관한 研究

郭 竝 變

首席研究員, Ph. D.(經濟學), 財政金融研究室

- I. 머리말
- II. 農村의 私債現況
- III. 農村公私金利構造의 效率性 分析
- IV. 農村私債의 效率的 政策方向
- V. 맺는 말

I. 머리말

私債를 定義한다면 이는 正規金融 機關으로부터의 빚이 아닌 개인이나 私金融機關 등으로부터의 비공식적인 빚이라 하겠다. 따라서 農村私債란 農村의 正規金融機關인 「農協」, 「水協」¹, 「새마을金庫」나 「信用協同組合」과 같은 公式金融機關²이 貸與者가 아닌 그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非公式으로 이루어지는 빚을 뜻한다 하겠다.

이러한 農村私債는 우리 나라와 같이 個人間의 관계가 긴밀하고 農村正規金融機關이 충분히 發達하지 못한 나라에서 많이 存在하는 特有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래에 와서 줄어졌다고는 하지만 農村實態調查의 結果를 보면 아직도 總借入金의 약 50% 정도는 私債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利子率이 대체로 월 3%내지 5%나 되는 高率임을 알 수 있는바, 이의 社會的,

經濟的 관점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며, 대책이 필요할지 어떤지를 分析해 볼 필요를 느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農村私債의 현황을 이미 調查된 資料를 갖고 整理 檢討한 후에, 私債의 經濟的 의미를 分析한 후 그 현실과 分析結果로부터 導出되는 政策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農村의 私債現況

먼저 農村私債의 규모를 살펴보면 <表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0년말 현재 農家當 평균 私債殘高가 166천원으로서 이의 農家當 所得에 대한 比率은 6%이며 農家當 總借入金에 대한 比重은 49%에 이른다. 한편 農村私債의 利子率을 보면, 평균 연 40%나 되어 이는 農協營 農資金의 利率 연 15%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따라서 農村私債의 特徵 중의 하나는 그 利率이 적어도 公金利에 비하면 높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農村私債의 규모를 最近의 一時點에서 알아보았으나, 이제 그 趨勢를 <圖1>에서 살펴보면 1965년에 72%, 1975년에 66%에서 1980년에는 49%로 서서히 떨어지는 趨勢에 있으나 아직도 높은 水準에 있음을 안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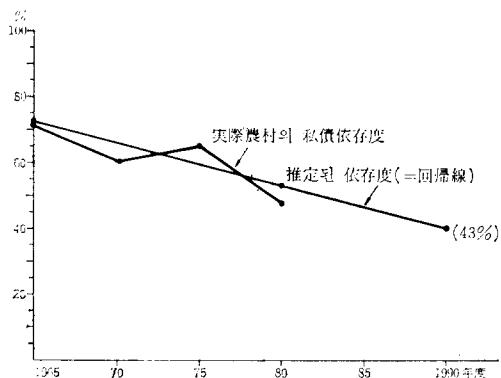
表 1. 農村私債의 規模 및 利子率

	規 模 1980년 말	利子率 1981. 3.
戶當私債殘高 (A)	166千원	年40%
戶當所得 (B)	2,691〃	
戶當總借入金 (C)	339〃	
所得에 대한 私債의 比率 (A/B)	6%	
總借入金에 대한 私債의 比率 (A/C)	49〃	

資料：農村私債 및 總借入金은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1; 所得은 韓銀, 國民所得課; 利子率은 「農經研 財政金融研究室」自體調査。

완만한 趨勢로 農村私債가 減少된다면 〈圖1〉에 그豫測值를 回歸分析 方法에 의하여 推定하여 나타내어 높은 바와 같이 1990년에 가서도 私債依存度가 43%나 되어 그때에도 農村金融에서 私債가 상당한 比重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圖 1. 農村私債 規模의 趨勢



$$\text{※私債依存度} = \frac{\text{私債残高}}{\text{借入金残高}}$$

資料：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

그러면 이러한 私債의 調達源泉을 〈表2〉에서 살펴보면 같은 「農民」이 86%로 그比重이 가장 높고 다음이 7%를 占하는 商人을 포함한 貸金業者이다. 그래서 私債를 주는 사람은 주로 여유 있는 農民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農村外部로부터 農村에 私債로 流入되는 資金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³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農村私債가 주로 農民으로부터 農民이 쓰는 것이기에 農民 전체로 보면 問題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겠으나, 인플레를 감안하

表 2. 農村私債의 調達源泉(戶當平均)

	規模(천원)	比率(%)
農 民	194	86
대 금 업 자(상인포함)	16	7
契	6	3
其 他	10	4
計	226	100

資料：農協中央會, 「農家信用調查結果報告」, 1979, pp. 53 ~55.

지 않은 名目으로 나마 높은 私債 利子率이 이에 비하여 크게 낮은 「農協」資金의 利子率과 共存하는 상태가 과연 어떤 經濟的 意味를 갖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分析은 다음 章에 記述한다.

다음, 私債에 따른 擔保관계 상황을 보면 〈表3〉에서와 같이 私債를 쓸 때에는 證書도 없는 경우가 39%나 되며 借用證만 쓰면 빌릴 수 있는

表 3. 農村私債의 擔保狀況

單位 : %

	現 金	現 物	全 體
擔 保 保 證	3	0	2
連 帶 保 證	20	0	16
借 用 證	42	47	43
無 證 書	35	53	39
合 計	100	100	100

資料：農協中央會, 「農村金融實態調查」, 1977, p. 49.

表 4. 農協을 이용 않는 이유

區 分	數(戶)	比率(%)
① 農協에 알아보니 農協資金이 不足해서	14	26
② 農協資金借入이 안되리라고 짐작되어	4	7
③ 農協借入金延滯가 있어서	1	2
④ 農協資金借入時擔保가 있어서	2	4
⑤ 申請한 農協資金이 제때에 안나와서	4	7
⑥ 私債가 잠깐融通하기에 便利하므로	21	38
⑦ 農協資金融資手續이 煩雜해서	9	16
合 計	55*	100

* 私債를 빌려온 經驗이 있는 農家數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刊 李貞煥, 丁安聲 「農業金融制度改善方案」, 1980. 12. p. 57.

경우가 無證書의 경우와 합하여 5분의 4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現物私債의 경우에는 擔保나 連帶保證은 全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農協」으로부터의 借用時의 擔保관계를 살펴보면 <表4>에서 農協을 이용 않는 이유로서 「農協資金借入時 擔保가 있어서」는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制度金融에서도 擔保는 별로 融資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擔保條件이 다른 融資條件 중에서 特別히 과중하지는 않다는 것을 나타내겠고 또한 公私金融 모두에 있어서 擔保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擔保가 特別히 重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그만큼 農民의 信用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나 同表에서의 「區分」란의 第6項과 第7項의 合, 즉 融資手續에 관계되는 「農協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들의 比重을 보면 54.6%로서 이項目들에 擔保로 인한 불편이 첨가되어 있다면 擔保條件이 特別히 過重하진 않다 하더라도 擔保關係를 포함한 전반적인 融資手續이 아직도 번잡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私債의 借用期間別 構成을 <表5>에서 살펴보면 1년 미만의 短期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農村私債는 주로 擔保없이 제공되는 것으로 不渡의 危險性이 높은 이유 등으로 주로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이지 長期契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겠다.

表 5. 農村私債의 期間別 構成

單位 : %

	6個月 以内	6個月 ~1	1年~2年	2年以上	計
農 民	25	70	4	1	100
非 農 民	36	64	0	0	100
契	39	61	0	0	100
合 計	27	69	4	1	100

資料：農協中央會, 「農家信用調查結果報告」, 1979, p. 54.

그러면 農村私債의 구체적 用途는 무엇인지 <表6>에서 살펴보면 總私債件數 중에서 營農資金으로 사용하는 件數의 比重이 37%, 子女學費로 사용이 31%, 그리고 生活費에 충당이 20%로 이 세項目이 頻度로는 주종을 이룸을 알게 된다.

그리고 私債의 件數와 金額이 비례한다면 私債의 37%는 營農資金에 사용되고 私債全體가 總農家借入金의 49% 정도이니 私債에 의한 營農資金調達의 總農家借入金에 대한 比率은 兩者를 乘한 19%임을 알 수 있다.

表 6. 農村私債의 用途 1981. 3.

用	途	構成比 (%)*)
營農資	金	37
學	費	31
生	活	20
病	費	5
其	他	7
	計	100

*) 發生件數의 構成比임.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 「主要研究要約報告」, 1981. 4, pp. 218-219.

이상 私債의 現況把握에서 드러난 주요한 내용을 要約하면

1. 農村私債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減少하는 傾向이 있으나 아직도 農家借入金 중 私債의 比重이 약 50%나 된다.
2. 農村私債의 利子率은 公金利보다 크게 높아 私債는 農民에게 重壓感을 준다.
3. 農村私債의 주요 源泉은 農民이다.
4. 農村私債는 擔保가 거의 없고 公金融에 비하여 融資手續이 간편하다.
5. 農村私債의 주 用途는 營農資金과 學資金에 충당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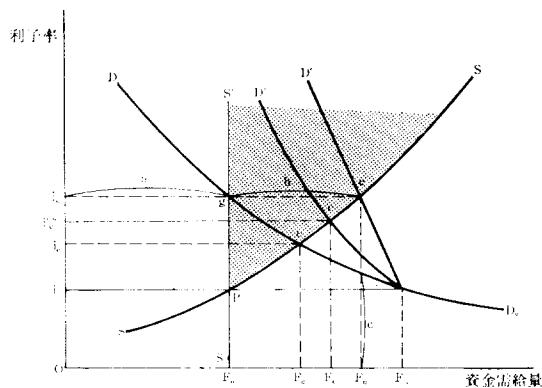
III. 農村 公私金利 構造의 效率性 分析

農村에 존재하는 私債는 반드시 否定的인 측면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農民이 私債를 쓰는 重要한 이유 중의 하나는 私債는 融資節次가 간편하다는 것이다. 私債는 그便利性으로 인하여 오히려 公式金融機關의 融資

보다도 더 效率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農村金融機關이 충분히發展하지 못한 곳에서는 私債가 資金融通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農村私債에 問題가 있다면 그것은 높은 利子率일 것이다.

그러나 1980년도의 연 40%가 넘는 一般物價의 上昇率을 고려한다면 약 40%의 農村私債의 名目利率이 오히려 實質利子率로는 負가 되어 너무 낮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農村私債의 名目高利 자체를 社會的 心理的 觀點으로부터는 否定的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經濟的 인 觀點으로부터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으나 낮은 公金利와 이에 비하여 높은 私債金利가 共存한다는 사실의 經濟的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改善策은 없는지는 研究의 對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章의 以下部分은 이러한 公私金利構造의 단순한 分析으로 채워질 것이다.

圖 2 農村資金需給



〈圖2〉에서 DD_0 曲線은 總 農村資金 需要曲線으로 利子率이 높으면 資金의 需要量은 적고 利字率이 낮으면 需要量은 많은 利子率과 資金의 需要量의 逆관계를 나타낸다. 환연하면 DD 曲線은 利子率이 i_u 만큼의 높은 수준에서는 F_d 만큼의 적은

資金이 需要되고 利子率이 i_d 만큼 낮을 때에는 F_u 만큼의 많은 資金이 需要되는데, 利子率이 낮을 때에는 利字率이 높았을 때의 需要量이 모두 需要되고 이에 더하여 利子率이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需要가 追加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曲線이다.

한편 〈圖2〉에서 SS 曲線은 農村資金의 總供給曲線으로 利子率이 높으면 供給量이 증가하고 利子率이 下落하면 그 量이 減少하는 利子率과 供給量의 正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통의 供給曲線型을 圖示한 것이다. 圖表에서 均衡資金 需給量은 e 點이 나타내는 F_e 이며 均衡利子率은 따라서 i_e 이다. 均衡利子率 i_e 에서 農村 總資金市場의 需給의 過不足은 없다. 이 均衡點 e 는 自由競爭下에서의 不完全이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의 效率的인 利子率 水準과 資金需給量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보다 높은 利子率에서는 예전대 i_u 가 실제 利子率이라면 이때의 資金需要量은 F_d 인데 資金供給은 F_u 이다.

따라서 供給은 많지만 需要不足으로 다만 F_d 만큼이 去來될 것이다. F_d 點에서 資金의 限界效率은 D_0D 가 나타내는 i_u 인데 비교하여 資金의 限界費用은 SS 가 표시하는 i_d 이므로 資金費用보다 資金效用이 커서 資金去來量을 增加시킴에 따라 社會的 效用을 增加시킬 수 있다. 이러한 資金增加에 다른 效用增加는 均衡點인 F_e 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며 그때의 利子率은 물론 i_e 이며 i_e 보다 더욱 利子率을 낮추면 그엔 供給이 需要에 미치지 못하며 다시금 非效率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圖2〉에서 三角型에 유사한 Peg 부분은 利子率이 i_u 거나 i_d 가 됨에 따라 발생한 社會的 損失을 나타낸다. 한편 資金의 需要量이 실제 F_e 보다 많은 예전대 F'_e 라면 이

때의 F_u 點에서의 資金의 限界費用은 i_u 水準인데 비하여 資金의 限界效用은 D_0D 가 의미하는 c 이므로 效用에 비하여 費用이 높다. 따라서 이 만큼 非效率的임을 나타내며 이러한 非效率은 資金의 需給量이 F_e 水準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된다.

그러므로 e 點이 나타내는 均衡利子率과 均衡需給量이 가장 效率的인 利子率이며 需給量이라 할 수 있다. 이를 效率性評價의 基準(criterion)으로 하고 私債의 高金利와 正規金融機關의 相對的 低金利가 共存하는 農村現狀을 分析하기로 한다.

이제 위의 農村資金의 總供給안에 私債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總資金供給曲線이 公式金融機關의 資金供給을 표시하는 P 點 즉 정해진 利子率과 資金供給量의 관계를 나타내는 點과, 私債供給을 나타내는, 利子率의 引上에 따라 供給量이 增加하는, 〈圖2〉에서의 水平으로 斜線친 부분과의 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假定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의 總供給曲線은 SS 中에서 PS 부분이며 私債供給만을 나타내는 曲線은 $S'S'$ 를 縱軸으로 F_d 點 以右를 橫軸으로 한 PS 曲線이다.

그러면 정해진 公式金融機關의 利子率 i_d 에서는 供給量은 F_d 인 반면 資金에 대한 需要量은 F_u 이므로 F_u 에서 F_d 를 減한 만큼의 需要超過가 발생한다. 따라서 公式金融機關은 F_d 의 資金으로 F_u 만큼의 需要 중에서 할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부족한 資金은 公式金融機關이 할당하는 단계에서 資金의 必要度가 비교적 높은 需要者에게 資金을 배당되는 경우와 아무에게나 추첨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할당되는 경우와 그리고 資金의 필요도가 비교적 적은 需要者에게 할당되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

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經濟性을 分析하기로 한다.

1. 資金의 必要度가 가장 높은 需要者에게割當된 경우

需要量에 비하여 부족한 公式金融機關의 供給資金이 資金에 대한 需要의 強度가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즉 가장 높은 利子를 支拂하겠다는 사람들에게 割當된 경우로서 이는 즉 〈圖2〉에서 i_u 的 利子率에도 借用하겠다는 需要者에게 全公式金融資金이 提供된 경우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편 私債市場의 私債利子率이 i_u 라면 私債에 대한 需要는 零이 될 것이다. 이는 縱軸인 利子率을 나타내는 軸이 右側으로 F_d 만큼 이동하여 $S'S'$ 가 되었을 경우에도 $S'S'$ 右便의 D_0D 曲線은 불변임을 나타낸다. 즉 새로운 私債의 需要曲線은 利字率이 i_u 일 때 需要量이 零이고 i_d 일 때 $[F_u - F_d]$ 인 원래의 D_0D 曲線 그대로 두고 縱軸만 右側으로 옮긴 후의 그것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需要와 供給도 e 點에서 交叉하여 e 點이 效率的인 資金의 需給量을 나타낸다는 앞의 設定된 基準에 따라서 判斷한다면 높은 私債利子率과 낮은 公金利의 存在가 이 경우에는 經濟的 效率性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2. 資金의 必要度가 가장 낮은 需要者에게割當된 경우

이 경우는 需要에 비하여 부족한 公式金融機關의 貸付資金이 이에 대한 必要度가 높은 사람에게 割當되지 않고 비교적 必要度가 낮은, 즉 높은 利字를 支拂하고는 融資받을 필요가 없고 利率이 낮으니까 借用할려는, 需要者에게 割當된

경우라 하겠다. 農村에서 높은 利子率에서도 借用할 사람이 擔保能力의 不足이나 無識 등 어떤 이유에서든 融資받지 못하고 그 반대로 資金이 비교적 긴요히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 割當되는 경우로서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假定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圖2>에서와 같이 $S'S'$ 를 縱軸으로 한 私債市場에서의 需要曲線은 右側으로 가장 많이 移動하여 D_0D' 와 같이 된다. 그理由는 앞의 效率的인 資金 割當의 경우 즉 公式金融機關의 資金이 보다 높은 利子率에도 借用하려는 需要者에게 提供된 경우와는 달리, 이 利子率 水準보다 낮은 利子를 支拂하고 借用하려는 需要者에게 公式金融資金이 그 需要를 充足시켰기 때문에 높은 私債利子率을 支拂하고도 借用하려는 사람이 私債市場에 여전히 많이 存在하게 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 만약 公式金融機關의 資金 F_d 가 전부 i_u 이하의 金利에서만 借用하려는 사람에게 割當된다면 私債市場에서는 i_u 的 利子率에서도 여전히 F_d 만큼의 需要量이 존재할 것이므로 <圖2>의 “a”와 “b”는 같으며 이때의 私債市場의 需要曲線은 $S'S'$ 를 縱軸으로 한 D_0D' 가 된다. e' 가 이때의 均衡點이며 資金의 總需要量은 e 가 나타내는 “0”를 原點으로 한 F'_e 가 되는데 F'_e 는 效率的인 需給量인 F_e 보다 크므로 非效率의이다. 이때 私債利子率은 i_u 로서 i_e 보다 높다. 따라서 이 경우의 i_u 가 통상의 높은 現實 私債利子率을 설명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3. 任意抽出한 資金의 需要者에게 割當한 경우

i) 假定은 性格上 위 두 假定의 中間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公式金融機關의 資金이 割當된

후에 私債市場에서 형성될 需要曲線은 위 두 경우의 需要曲線의 어느 中間에 位置하여 D_0D'' 와 같은 曲線이다. 이때 均衡點 e'' 가 나타내는 利子率과 資金需要量 $F''_{e'}$ 도 위 두 경우의 각 水準들의 中間에 位置한다. 따라서 私債利子率과 總資金需要量은 모두 效率的인 水準보다 높으나 위 第2節의 极단적인 非效率性의 경우보다는 낮아 非效率性의 정도에 있어서도 그 경우보다 낮다.

이상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한 낮은 利率의 公式金融과 높은 利率의 私金融이 共存하는 상태에 대한 效率性을 分析한 結果는 비록 「限定된 供給量과 特惠的인 낮은 利子率로 融資하는 公式金融」과 「자유롭게 利子率과 需給量이決定되는 私金融」이 共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效率性評價는 公式金融市場에서 利率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供給資金을 어떻게 割當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즉 가장 必要度가 높은 資金需要者에게 부족한 公式金融資金이 割當된다면 그러한 現狀도 效率性의 問題가 없고, 그 반대로 됨에 따라 즉 資金에 대한 必要度가 비교적 낮은 需要에 公式金融資金이 充當되는 정도에 따라 經濟的 效率性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IV. 農村私債의 效率的 政策方向

이상에서 파악된 農村私債의 現況과 理論的分析을 토대로 하여 이제 效率的 農村私債政策의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農村私債는 近年에 와서 그 比重이 서서히 낮아지는 趨勢에 있고, 公式金融機關이 충분히 發展하지 못한 우리의 農村實情에서는 私債가 반드시

有害한 存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過激한 私債政策, 예컨대 全私債의 債權債務 관계를 폐지한다든지 凍結하는 따위의 私債政策은 이러한 政策이 가져오는 貯蓄意慾의 減退와 社會的・經濟的 不安定을 고려할 때에 적절한 政策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農村私債의 比重이 아직도 約 50%나 되고 그 利子率이 名目이 나마 평균 年 40%에 이르러 낮은 公金利, 예컨대 農協의 營農資金貸出의 경우 年 15%에 비교하면 公私金利 間의 차가 심하여改善의 여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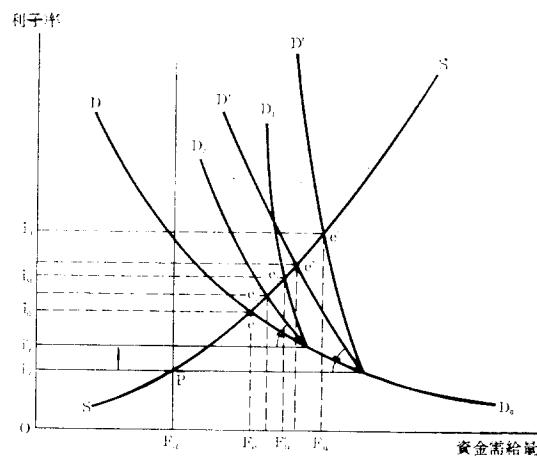
農村私債의 근본적인 주요 對策은 그 量을 줄이기 위하여는 農民의 所得增大 그리고 農村私債의 利子率을 낮추기 위하여는 인플레 抑制임은 물론이겠으나 이는 國家經濟의 一般政策이지 農村私債 관계에 특별히 效果가 있는 政策은 아니므로 이러한 一般經濟 政策으로 農村私債를 整理한다는 것은 效率의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農村私債에 특효한 정책이 필요하다.

農村私債의 輕減을 위하여 첫째로 들 수 있는 대책은 「農協」 등 公式金融機關에 대한 農民의 利用率을 提高하는 것이다. 앞의 私債現況分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農民이 農協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融資 手續의 복잡」이 차지하는 比重이 過半이나 됨은 이러한 政策提議의 充分한 根據가 된다. 그러나 公式金融機關도 政府 등의 政策資金支援 이상으로 受信 없이 與信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與信條件 즉 融資條件를 簡素化하여 農民의 農協 利用率을 提高시킴과 동시에 受信도 增大되도록 預金勸誘나 指導도 強化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 金庫」와 「信用協同組合」도 계속 發展시켜 규모는 적으나마 現代的 施設을 갖춘 店舗를 갖추도록 하여 農協을補完하는 그들의 役割을 충분히遂行하도록 하

는 것이 私債의 整理에도 도움이 크다.

그리고 앞의 公私金利構造 分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經濟的 效率性 提高를 위하여 낮게策定된 公式金融 機關의 與信利子率에서 발생하는 超過需要 現狀에서 資金分配時 임의로 할당하거나 擔保 등 融資받을 수 있는 能力에 따라割當하기 보다는 資金需要者의 資金의 必要度를評價하여割當하는 것이 私債利子率을 낮추는結果를招來하고 앞서의 評價基準에 따른 最適量에 접근하므로 效率의인 總資金 需給量의 決定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私債金利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公金利를 引上하는 方向으로 調整하는 政策은 어떤 結果를招來할 것인지 分析하기로 한다.

圖 3. 農村資金需給에 公金利引上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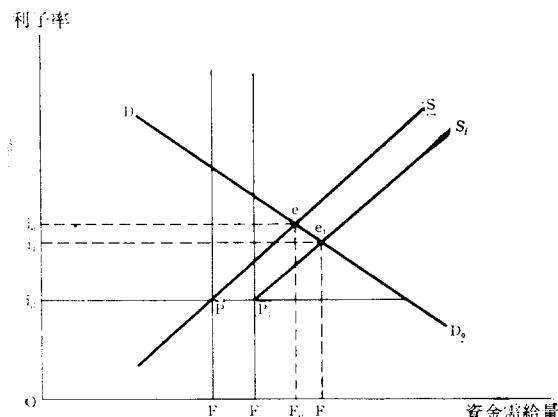


〈圖3〉은 〈圖2〉의 필요한 부분을 평의상 다시 그린 후에 새로운 分析을 위하여 필요한 첨가를 한 것이다. 公金利의 引上은 〈圖3〉에서 i_d 點의 左쪽으로의 이동으로 표시되므로 i_d 에서 시작되는 水平線의 上向移動을 가져온다. 그래서 〈圖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D_0D , $D'D_1$, D_0D_2 의 새로운 각각의 경우의 需要曲線이 供給曲線 SS와 交叉하는 點 e , e_1 , e_2 는 그에 상대되는 원래

의 e , e' , e'' 에 비하여 모두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改善된 狀態 즉 각각의 경우에 적어도 전과 동일한 私債利子率과 總供給量, 아니면 전보다 낮은 私債利子率과 보다 效率의 總資金의 需給量에서 均衡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公金利 引上에 따른 改善의 效果는 단순한 이 분석에 의하면 公金利를 效率의 均衡點인 e 點이 나타내는 i_e 水準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며 i_e 에 이르면 與信公金利와 私債利子率은 i_e 로서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公金利가 私債利子率과 동일할 때까지 與信公金利를 引上하는 것이 私債利子率을 낮추고 資金需給量이 보다 效率의 水準에서 決定되도록 하는 데에 效果가 있다.

끝으로 政府가 財政資金支援을 增加함에 의하여 公式金融機關의 供給資金量이 增加된다면 어떤 結果를 가져올 것인지 간단히 究明하고자 한다. 本稿의 圖表 模型을 단순화 한 후 再現하는 <圖4>에서와 같이 公式資金의 이러한 增加는 總供給曲線의 右向移動으로 표시되므로 財政資金增額으로 인하여 P 點이 P_1 點으로 이동한다. 總供給曲線 PS 는 P_1S_1 으로 단순히 이동한다. 따라서 私債市場의 均衡點은 e 에서 e_1 으로 변경

圖 4. 政策資金追加配定의 效果



되어 私債利子率을 引下시키고 보다 增大된 均衡需給量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結果는 물론 財政資金의 增加가 一次的으로 公式金融市場의 資金事情을 好轉시키고, 二次的으로는 私債市場에서의 資金梗塞를 또한 減少시키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財政資金 增加는 私債利子率을 引下시키는 바람직한 면은 있으나 이미 效率의 總需給量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증가는 非效率을 증대시키는 結果를 또한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私債政策에 관한 研究를 요약하면,

1. 農協 등 農村 正規金融機關의 融資節次를 간소화하고 預金誘致運動을 強化하는 것은 私債輕減 效果가 크다.
2. 公式融資資金의 낮은 利率에 따른 超過需要 狀態에서 資金割當時 需要의 緊要度를 반영하는 것이 私債利子率의 引下와 效率의 總資金需給量 결정에 도움이 된다.
3. 與信公金利를 私債利子率을 超過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引上하는 方向으로 調整하는 政策은 私債利子率의 引下와 效率의 總資金需要供給量 결정에 도움이 된다.
4. 公式 金融機關의 政策資金을 增額시키는 方策은 私債利子率을 引下시키는 效果가 있지만 總資金需給量을 增大시키게 되므로 이미 總資金均衡量이 效率의 水準을 초과했을 때는 總均衡需給量面에서의 非效率性을 더하게 된다.

V. 맺는 말

이상으로 우리 나라 農村私債의 現況을 정리하여 把握한 후 農協 등 公式 金融機關의 與信利率은 비교적 낮은 반면 私債利子率은 월등히 높은 金利構造 안에서도 私債가 아직도 存재

한다는 사실에 主眼點을 두고 현실을 단순화하는 假定과 함께 그 效率性에 대한 分析을 시도한 후 現況과 分析結果를 根據로 하여 效率的인 政策方向을 提示하고자 하였다.

물론 本稿의 分析은 農村金融만을 다루고 非 農村金融 즉 都市金融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部分分析이겠으나, 私債관계에 관한 한 農村과 都市에 차이가 별로 없다면 都市와 農村을 合한 金融全體에도 적용될 수 있고 都市와 農村과의 相關關係가 유의하지 않다면 都市金融에도 準用될 수 있겠다. 그리고 現在 이용할 수 있는 既存資料로서 分析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測定이 缺如된 點이 있는데 이의 改善은 금후 補完作業의 內容이 되겠으나, 정책 방향만이라도 設定되면 그 方向으로 점차적으로라도 施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註 1. 農村의 定義안에 漁村도 포함하는 경우, 本稿의 내용이 金融에 관한 것인 바 金融에 관한 한 漁村에는 「農協」대신 「水協」이 그 役割을擔當하는 것 외에는 農村와 漁村이 그 構造上 유사하므로 農村私債를 논할 때 漁村私債도 포함시켜도 무방하겠음. 다만 「農協으로부터의 資料에는 漁村을 포함하지 않음을 참고 바람.

2. 公式金融機關이란 信用協同組合과 같은 民間이 設立하고 運營하지만 그 設立이나 運營이 政府의 認可와 規律을 받는 民間金融機關을 포함하는 의미로서의 公式金融機關을 뜻한다.

3. 農村外部로부터 農村으로 資金이 流入되었으나 農民의 仲介를 거쳐 他農民에게 私債로 移轉된 경우 이를 資金源泉으로서의 農民에 포함시켰는지의 여부나 그러한 資金의 규모를 <表2>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表로 부터의 判斷이 편향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한 私債로부터의 利子收入이 農村外部로 流出되지 않는限本文 다음 句節의 「農村私債가 주로 農民으로부터 農民이 쓰는 것이기에……問題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結論은 변동이 없음.

參 考 文 獻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
 農協中央會 調查部, 「農家信用調查結果報告書」, 1979. pp. 53~55.
 農協中央會 調查部, 「農家信用構造와 農業金融改善方向」, 1979. p. 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主要研究要約報告」 1981. 4. pp. 218 ~219.
 李貞煥, 丁安聲, 「農業金融制度 改善方案」, 農村經濟研究院, 1980. 12. p. 57.